

영국 니하이 씨어터

데드 독

DEAD DOG IN A SUITCASE... AND OTHER LOVE SONGS



COM
PAS
16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LG아트센터

대표

정창훈

기획팀	운영팀	기술팀
팀장 이현정	팀장 홍상기	팀장 엄성기
기획 신호경 김윤정 이현희	운영 김재운 김순자 김홍연 김지훈	조명 전명진 류대경 류한경
홍보/마케팅 김지인 한동희 오경은 구연제 김희래	매표소 배윤정 류선주 김나연 편영란 강명화 조성민 이주현	무대 홍지웅 황성환 서지형 류현빈 음향 이범훈 엄준석
디자인 신미현	대관/하우스 매니저 이선옥	

제작지원

무대 육지훈 송찬영 이중훈 김상민 이훈섭 조명 박장오 김운주 안지현 김병구 조용재 정지혜 지경찬
음향 유성식 오성준 정영채 영문대본번역 조용경 자막 오퍼레이팅 최윤희 무대 통역 오혜진 신중훈

공연진행 보조 주니어 보드 15기 - 권지민 김나영 김효준 양지나 정상혁 조하영

협찬 신한카드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U+

협력 BRITISH COUNCIL

영국 니하이 씨어터
데드 독

2016.4.21 - 24

Kneehigh with Liverpool Everyman and Playhouse
Dead Dog in a Suitcase (and other love songs)

A New Beggar's Opera

Written by Carl Grose
Music by Charles Hazlewood
Directed by Mike Shepherd

Kneehigh
ON TOUR



Supported using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우리는 지금 1728년의 존 게이(John Gay)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
위기 상황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인들,
비몰어진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쁨은 법조차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타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는 <거지 오페라 The Beggar's Opera>라는 작품을
다시 들여다 보았고, 새로운 대본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이야기와 캐릭터들로 발전시켰습니다.
<데드 독 Dead Dog in a Suitcase (and other love songs)>은
바로 지금의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대체 어찌 돌아가려는 걸까요?

프로듀서 폴 크루스 Paul Crewes

CAST

Rina Fatania

피침 부인

James Gow

연주 및 맥히스의 갱단 일원

Angela Hardie

폴리 피침

Ed Hughes

맥히스

Martin Hyder

레스 피침

Giles King

클린 로켓

Justin Radford

연주 및 맥히스의 갱단 일원

Lucy Rivers

굿맨 부인

Ian Ross

연주, 굿맨 시장, 맥히스의 갱단 일원

Beverly Rudd

루시 로켓

Jack Shalloo

필치

Sarah Wright

인형 및 맥히스의 갱단 일원

그 밖의 다른 배역 모두 출연자들이 연기합니다.

CREATIVE TEAM

Director Mike Shepherd

Writer Carl Grose

Composer & Music Director

Charles Hazlewood

Choreographer & Assistant Director

Eta Murfitt

Designer Michael Vale

Lighting Designer Malcolm Rippeth

Sound Designer Ian Davies

Associate Sound Designer Jay Jones

Associate Music Director Ian Ross

Puppet Director Sarah Wright

Producer Paul Crewes

Production Manager David Harraway

Company Stage Manager Steph Curtis

Technical Stage Manager Aled Thomas

Assistant Stage Manager Kate Foster

Lighting Alex Shenton-Parkin

Sound Ian Davies

Costume Supervisor Jacquie Davies

Casting Sam Jones CDG

Marketing Sam McAuley

Press Cliona Roberts

Illustrations Daryl Waller

Photographer Steve Tanner

Film Brett Harvey

Puppet Designer Lyndie Wright

Puppet and Mask Makers

Sarah Wright, Alice King, Geraldine Spiller,

Jan Zalud, Alison Alexander, Mae Voogd,

Daisy Beattie and Mike Gray

We would like to thank...

Lin Potter at Wrightsure, Dave Cork at PRS, David Pugh and Dafydd Rogers, Phil Innes, Daryl Waller, Tim Sykes, Daniel Sparrow, John at LPA, The Liverpool Sling Library, Kate Godfrey and Les Bubb, Splinter, Stage Sound Services, Jedd Hamilton and White Light, Sarah Mills and the Little Angel Theatre.

Huge thanks go to Mary Woodvine, Stu Barker, Alex Vann, Tristan Sturrock, Dean Nolan and Stu McLoughlin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R&D for this project, to Susa Gelpke-Doran, Sybilla and all at Paterno for their support and encouragement in hosting our early "Dead Dog" adventures, and Carly Bawden, Audrey Brisson and Andrew Durand for their time as part of the Dead Dog in a Suitcase (and other love songs) cast in 2014.

Charles would like to thank Henrietta Lang, Adrian Utley, Rachel & Becky Unthank, and Adrian McNally. Michael would like to thank Sarah Jane Mills for her role as Design Assistant.

A big thank you to Emma Rice for support and development of this project, and to the company for their skill, experience, care and creativity. Without their generosity and brilliance, this work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ABOUT

새롭게 만나는 우리 시대의 거지 오페라

세상은 가난하고, 인간은 악해. -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중

<거지 오페라 (The Beggar's Opera)>는 영국의 시인인 존 게이(John Gay)의 대본에 독일 출신의 작곡가인 요한 페푸쉬(Johann Christoph Pepusch)가 편곡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3막 구성의 발라드 오페라로 1728년 런던에서 초연되었다. 당시의 영국 오페라 무대는 작곡가 헨델(George Fredric Handel, 1685~1759)의 작품을 위시로 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 오페라는 일반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신화나 왕과 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었고, 영국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불러졌던 데다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존 게이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일부 흉내내면서도 완전히 대조적인 성격의 서민 오페라를 만들었다.

<거지 오페라>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친숙한 발라드와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선율을 차용해 이야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사를 붙였고, 영어로 되어있어 이탈리아 오페라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도둑, 거지, 창녀 등 하층계급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18세기 런던 뒷골목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한편, 정치인과 상류층의 위선과 도덕적 타락, 결혼제도 등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와 부조리한 당대 영국 사회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익살과 풍자, 패러디를 가득 담아낸 이 작품은 관객들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주었고, 초연 후 62회나 더 공연될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거지 오페라>는 당대 극장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이자 18세기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기원을 연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0년 후인 1928년 <거지 오페라>는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와 작곡가 쿠르트 바일(Kurt Weill)에 의해 <서푼짜리 오페라 (The Threepenny Opera)>로 다시 태어났고, 브레히트는 이 작품을 통해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허상을 비판하고 풍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국의 니하이 씨어터가 자신들만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손길을 가한 21세기 버전의 <거지 오페라>인 뮤지컬

<데드 독 (원제 Dead Dog in a Suitcase - and other love songs)>을 만나게 된다.

존 게이와 브레히트의 작품이 그러했던 것처럼 뮤지컬 <데드 독>은 현대 사회의 어둡고 뒤틀린 이면을 그려 내면서도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고 있다. 또한 웨스트엔드 뮤지컬을 능가할 만큼 버라이어티한 음악과 기발한 무대 사용, 생동감 넘치는

© Steve Tanner

배우들의 춤과 노래를 가득 담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상을 꼬집던 존 게이의 원작은 당시의 날카로움을 상실했을지 모르지만, 니하이 씨어터는 살인청부업자, 부패한 정치인과 경찰관, 현대판 로빈 후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가 등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냄으로써 원작의 정신을 되살리는 동시에 동시대성과 참신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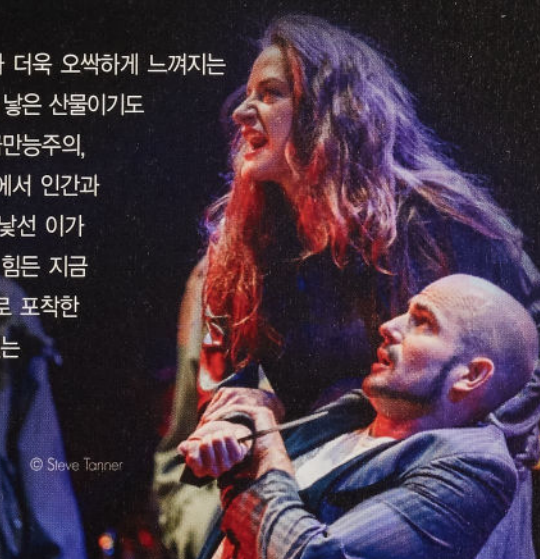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이야기에 재미와 활기를 더해주는 것은 새롭게 작업된 음악이다. 18세기의 다성음악(polyphony), 헨리 퍼셀(Henry Purcell)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포크 발라드, 디스코, 뉴 웨이브,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발생한 대중음악 장르인 그라임(grime)과 덤스텝(dubstep), 그리고 펑크, 힙합, 스킵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들은 작품 전체에 걸쳐 참신하게 뒤섞이고 배치됨으로써 스토리에 탄력을 불어넣는다. 때로는 강하고 거칠게 세상에 대해 포효하던 음악은, 때로는 흥겹고 감성적인 멜로디로 우리 시대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다른 사랑 노래들 (and other love songs)>이라는 공연의 부제처럼 더불어 사랑을 노래한다.

+ 죽은 개가 왜 가방 속에?

공연의 원제목인 <여행 가방 속의 죽은 개 (Dead Dog in a Suitcase)>는 도시에 떠도는 괴담, 즉 도시전설(urban myth)에서 따왔다. 구전으로 퍼지는 만큼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런던에 떠도는 이야기의 경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하다. 어떤 사람이 건너 건너 가는 이로부터 며칠 집을 비우는 동안 자신의 집에 와서 개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러나 돌보던 개가 갑작스레 죽어버리고 만다. 난처해진 그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기로 한다. 그리고 차를 이용할 수 없어 죽은 개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탄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역의 출구로 나가기 위해 높은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어느 낮은 이가 친절하게도 도움을 손길을 내민다. 그러나 계단 꼭대기에 다다르자 마자 낮은 이는 그를 밀치고 가방을 강탈해 가버린다.

이처럼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라 더욱 오싹하게 느껴지는 도시 전설은 그만큼 각박하고 힘든 현대의 도시 생활이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남이야 어찌되었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이나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낮은 이가 친절히 손길을 내밀어도 아무 의심 없이 도움을 받기 힘든 지금 세상의 모습을 '가방 속의 죽은 개'를 통해 상징적으로 포착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대체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는다.

© Steve Tanner





펀치와 주디

'펀치 앤 주디'는 미스터 펀치(Punch)와 그의 아내 주디(Judy)가 등장하는 꼭두각시 인형극으로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부터 영국에서 공연되며 전통 인형극으로 자리잡은 '펀치 앤 주디'는 보통 '펀치맨'이라 불리는 인형 조종사 1명이 부스 안에 들어가 공연하는 형식이다.

주인공인 미스터 펀치는 매부리코와 곱사등이 외양, 능청스러운 익살을 지니고 있으며, 아내 주디나 다른 캐릭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데에서도 드러나듯 무법자적으로 행동하며, 짓궂고도 남을 잘 속이는 성향을 보인다.

<데드 독>의 연출가 마이크 셰퍼드는 미스터 펀치의 이러한 특성이 주인공 맥히스를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인형극의 이야기는 매우 다양하데,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들로는 아내 주디 외에도 그들 부부의 아기, 강아지 토비(Toby), 광대, 유령, 판사, 프리티 폴리(Pretty Polly), 악마, 악어, 사형 집행인 등이 있다. 뮤지컬 <데드 독>에서도 이들 캐릭터와 관련된 인형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CHARACTER



맥히스
Macheath

갱단의 두목이자 청부살인을 저지르는 킬러, 마성의 매력을 지닌 나쁜 남자



레스 피침
Les Peachum

정어리를 원료로 통조림과 헤어 제품, 건설용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피침 주식회사의 사장.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한 인물로 차기 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피침 부인
Mrs. Peachum

남편을 닮아 교활하기 그지 없고, 행동력은 남편을 능가한다.



폴리 피침
Polly Peachum

피침 부부의 모범생 딸. 맥히스와 몰래 결혼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날 계획을 한다.



콜린 로킷
Colin Lockit

경찰서장. 피침과는 모종의 거래가 있다.



루시 로킷
Lucy Lockit

로킷의 딸. 만삭에 가까운 임신 상태로 아기 아빠가 누군지는 비밀이다.



필치
Filch

피침의 하수인. 그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온갖 고생을 다한다.



조셉 굿맨
Joseph Goodman

정의롭고 선량한 시장. 사랑하는 개 토비와 함께 산책하던 중 살해되고 만다.



굿맨 부인
Lady Goodman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고, 그의 뜻을 이어 정의를 구현하려 한다.



토비
Toby

굿맨의 애완견



테리
Terry

감옥의 간수, 사형집행인

펀치와 주디 인형들 • 원숭이 조이 **Joey the Monkey** • 갱단의 일원들 • 상류층 및 지도층 인사들
시민들 • 피침 정어리 통조림 공장의 인부들 • 슬래머킨 클럽(**The Slammerkin**)의 소꿉들 • 그녀의 이야기들



SYNOPSIS

Part 1

70 mins.

어두운 밤, 맥히스가 필치와 접선한다. 필치는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건네고, 그가 받아온 살인 청부 의뢰를 전달한다. 맥히스는 권총을 들고 일에 착수한다.

굿맨 시장이 애완견 토비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두려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하고 그러한 결심을 녹음기에 남긴다. 그러나 맥히스가 나타나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다음날 기자회견이 열리고 피침은 시장을 잃은 비통한 심정을 전한다. 굿맨 부인은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며 통곡한다. 경찰서장 로킷은 현장에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서 이는 필시 맥히스의 소행임을 단정한다. 피침은 시민들 앞에서 공석이 된 시장 자리에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

남편과 몰래 축하를 하던 피침 부인은 혹시 맥히스가 잡혀서 자신들이 시장을 청부살인한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자신만만한 피침은 경찰서장 로킷에게도 이미 수를 써냈다고 한다. 필치는 피침이 보낸 뇌물을 로킷에게 전달한다. 로킷은 임신한 딸 루시에게 애 아빠가 누구인지 말하라며 다그친다.

한편 남편이 남긴 녹음기를 발견한 굿맨 부인은 분노로 폭발한다. 피침 부부는 딸 폴리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불안해하며, 필치에게 딸을 감시하라고 시킨다.

그 시간 시내의 어느 버려진 건물. 폴리가 맥히스와 함께 춤추고 있다. 이 둘은 방금 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을 발견한 필치는 기겁한다. 둘은 함께 멀리 떠나기로 하고 사랑을 맹세한다. 그러나 바로 로킷이 들이닥치고 맥히스는 도망가면서 폴리에게 해질 무렵 부둣가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 필치는 피침 부부에게 가서 폴리가 맥히스와 결혼했음을 알린다. 경악한 그들은 로킷이 맥히스를 체포할 수 있도록 현상금을 대주기로 한다.

굿맨 부인은 남편 암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도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

도망친 맥히스는 루시를 찾아가 경찰을 따돌려달라고 부탁한다. 루시는 맥히스에게 아기의 아버지임을 알리지만, 그 후 로켓으로부터 맥히스가 폴리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피침 부인은 맥히스와 결혼한 폴리를 다그치며 그의 약속을 믿지 말라고 경고한다. 폴리와 그의 약속 장소로 나가려던 맥히스는 그 전에 잠깐 클럽에 들르기로 한다.

Interval 15 mins.

Part 2

60 mins.

도시의 상류층 남자들이 즐겨 찾는 슬래머킨 클럽. 한참을 놀던 맥히스는 예전에 바람맞힌 적 있는 쇼걸들과 다시 조우한다. 그녀들은 그를 묶은 후 로켓에게 넘겨버린다. 그 시간 폴리는 부둣가에서 맥히스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드디어 시장 선거일. 피침과 굿맨 부인은 마지막으로 한 표를 호소한다. 이윽고 투표가 마감되고, 결과가 공개된다. 새로 당선된 시장은 업무를 개시하면서 즉각 교수형을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그 첫 대상은 필시 맥히스가 될 것이다.

루시는 감옥에 수감된 맥히스에게 찾아와 폴리와 결혼한 사실을 따져 묻는다. 그리고 자신을 달래려는 맥히스에게 자신과도 결혼해줄 것을 요구한다. 루시의 도움으로 탈출할 심산인 맥히스는 재빨리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때마침 폴리 역시 맥히스를 찾아오고, 마주친 두 여자는 서로 대립한다.

결국 탈옥에 성공한 맥히스는 다시 클럽으로 피신하게 된다. 쇼걸들은 아기들을 데려와 맥히스를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 한편, 맥히스에게 버림받은 폴리는 절망한 채 바다로 몸을 던진다.

로켓은 맥히스가 탈옥한 감옥에서 루시의 흔적을 발견하고, 피침 부인은 맥히스에 대한 현상금을 백만 파운드로 올리겠다고 한다.

맥히스가 있는 클럽으로 갱단 일원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두목으로 삼기로 했으며 그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현상금을 노린 이들은 결국 맥히스를 경찰에게 넘긴다. 맥히스는 순순히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는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한다. 이제 그를 매달 교수대가 준비되는데...



니하이 씨어터

니하이 씨어터는 영국 남서부 해안 지방인 콘월 (Cornwall)에서 1980년 창단되어 3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극단이다.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극단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지만 그 첫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니하이를 창립한 연출가 마이크 셰퍼드(Mike Shepherd)는 연극에 대한 꿈을 접고 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여가 시간을 이용해 마을의 학생들과 농부, 슈퍼마켓 점원, 간판제작공, 전기공, 동네 밴드의 기타리스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연극 워크숍을 열었고, 이는 곧 극단의 창단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마을 회관이나 천막, 절벽 꼭대기나 호숫가, 채석장, 오래된 성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연하였는데, 분홍신(The Red Shoes), 주신 바커스(The Bacchae)처럼 익숙한 동화나 신화, 또는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 Yseult)처럼 콘월 지방의 옛 전설에 바탕을 둔 이야기들은 공연 장소의 신비로운 특성과 만나 거친 듯한 매력과 생생한 에너지를 뽐내며 관객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니하이는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에 충실하면서도 라이브 음악이나 인형극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극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며, 무릎 높이 (Knee-high)라는 극단의 이름처럼 관객들과 소통하기 쉬운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또한 영국 전역을 무대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면서도 콘월 지방의 주민 및 아티스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역 고유의

색채를 진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헛간(Barns)'이라고 부르는 콘월 해안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이들만의 창작 공간에 자리잡고 아름다운 그곳의 자연과 날씨에 순응하며 함께 구상하고, 연습하고, 요리하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하고도 혁신적인 스타일을 각인 시키며 영국 공연계의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내셔널 씨어터, 던마 웨어하우스, 브리스톨 올드 빅 등 영국의 다른 유서 깊은 극단들조차도 니하이만의 개성과 크리에이티브한 저력을 탐내며 앞다투어 공동으로 작품 제작에 나섰다. 지난 2015년에는 마이크 셰퍼드와 함께 공동 예술감독으로 재직해왔던 연출가 엠마 라이스(Emma Rice)가 2016년부터 런던 셰익스피어 글로브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2010년 본거지인 콘월 지방의 아름다운 숲속 정원에 천막형 공연장인 어사일럼(The Asylum)을 개관한 니하이는 공연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런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매 시즌마다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관객들을 콘월로 불러모으고 있다. 또한 '니하이 산책하다(Kneehigh Rambl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 또는 관객들로 하여금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고, 공연에 참여하거나 창작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상상력과 영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토록 생생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다이내믹을 구현해내는 극단을 니하이 말고는 알지 못한다.”

미국 The New York Times

주요 작품

- 2006 셰익스피어의 <심벌린 Cymbeline>
<라퐁젤 Rapunzel>
- 2007 <천국으로 가는 계단 A Matter of Life and Death> 영국 내셔널 씨어터 공동 제작
- 2008 <밀회 Brief Encounter>
<돈 존 Don John>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공동 제작
- 2009 <헨젤과 그레텔 Hansel & Gretel> 영국 브리스톨 올드 빅 공동 제작
- 2010 <프러시아의 왕 The King of Prussia>
<블래스트! Blast!>
- 2011 <와일드 브라이드 The Wild Bride>
<헐부르의 우산 The Umbrellas of Cherbourg>
- 2015 <레베카 Rebecca> <946>
<아돌퍼스 팁스의 놀라운 이야기 The Amazing Story of Adolphus Tips>
<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 Yseult>

For Kneehigh

- Artistic Director Mike Shepherd
- General Manager Charlotte Bond
- Producer Liz King
- Company Stage Manager Steph Curtis
- Technical Stage Manager Aled Thomas
- Finance Officer Fiona Buxton
- Development Officer Bethany Lyne
- Communications Assistant Dann Carroll
- Production Assistant Millie Jones
- Marketing Kym Bartlett & Sam McAuley
- Production Manager David Miller
- Rambles Lead Artist Anna Maria Murphy
- Photographer Steve Tanner
- Graphic Designer Dave Mynne
- Film Maker Brett Harvey

Kneehigh Associate Artists

- Simon Baker
- Stu Barker
- Carl Grose
- Simon Harvey
- Etta Murfitt
- Anna Maria Murphy
- Malcolm Rippeth
- Steve Tanner
- Ian Ross
- Daryl Waller
- Sarah Wright

Kneehigh Board

- Alan Livingston (Chair)
- Peter Cox
- Sheila Healey
- Claire Morpurgo
- Daphne Skinnard
- Simon Williams

Keep in touch!

- www.kneehigh.co.uk
- Twitter@WeAreKneehigh
- Facebook.com/WeAreKneehigh
- Vimeo.com/WeAreKneehigh

CREATIVE STAFF



Mike Shepherd

연출가/예술감독

1980년 니하이를 창단한 마이크 셰퍼드는 배우 겸 연출가, 또한 교육자로도 활동하며 니하이를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은 니하이의 오늘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는 엠마 라이스(Emma Rice)와 함께 니하이의 공동 예술 감독으로 일해왔으며, 라이스가 2016년부터 셰익스피어 클로브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됨에 따라 현재는 단독으로 극단을 이끌고 있다. 니하이와 함께 전세계를 투어하며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온 그는 안나 마리아 머피(Anna Maria Murphy)와 함께 “니하이 산책하다(Kneehigh Rambles)”라는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기도 하며, 이동과 변신이 가능한 니하이의 공연장 어사일럼(The Asylum)을 개관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주요 연출작으로는 《Hansel & Gretel》, 《A Very Old Man with Enormous Wings (with Little Angel Theatre)》, 그리고 엠마 라이스와 공동 연출한 《Kneehigh Rambles》가 있다.



Carl Grose

작가

칼 그로즈는 20년 동안 니하이의 일원으로서 《Tristan & Yseult》, 《The Bacchae》, 《Blast!》, 《Cymbeline》, 《Hansel & Gretel》, 《The Wild Bride》와 같은 작품을 집필하였다. 또한 《The King of Prussia》, 《The Riot》, 《Wagstaffe The Wind-Up Boy》, 《Nights At The Circus》와 같은 작품에서는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 외 집필작으로는 《Quick Silver》, 《49 Donkeys Hanged》, 《Superstition Mountain》, 《Grand Guignol》, 《The 13 Midnight Challenges of Angelus Diablo》, 《Gargantua》, 《Horse Piss For Blood》 등이 있으며 웨일즈 국립 극단, 아이슬란드의 베스투르포트 극단, 스파이 몽키 그리고 BBC TV와 라디오와도 함께 작업했다. 그는 콘월에 제작사인 O-region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브리스톨의 올드 빅(Old Vic) 극장과 런던의 내셔널 씨어터,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SC)를 위한 작품을 집필하고 있다.



Charles Hazlewood

작곡 및 음악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뿐만 아니라 오페라, 연극, TV, 라디오, 영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폭넓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찰스 헤이즐우드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한 후 20대의 나이에 유럽방송연맹 지휘자 콩쿨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는 네덜란드의 로열 콘체르트허바우, 스웨덴의 예테보리 심포니, 영국의 필하모니아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한편, BBC TV와 라디오의 다양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도 활동하며 빛나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오페라단인 DDK(Dimpho Di Kopane)를 공동으로 설립해 200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비제의 《카르멘》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그가 음악감독을 맡아 《유 카르멘 에카델리차(U-Carmen eKhayelitsha)》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2005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황금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그는 고향인 서머셋에서 신개념의 교향악 축제인 오케스티발(Orchestival)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장애를 지닌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직업 오케스트라인 브리티시 파라오케스트라(British Paraorchestra)를 설립해 2012년 런던 패럴림픽 폐막식 무대에서 연주하는 등 음악에 기반한 사회 활동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휘자로서 그는 100회가 넘는 세계 초연을 맡았으며, 와이클리프 진(Wycklef Jean), 프로페서 그린(Professor Green), 나이젤 케네디(Nigel Kennedy),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 등 다양한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했다. 또한 세계적인 록 페스티벌인 글래스턴베리에서 최초로 심포니 콘서트를 선보였던 인상 깊은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는 2015/16 시즌 동안 스웨덴의 말뫼 심포니와 “Close Up with Hazlewood” 시리즈 공연을 진행하며, 그 밖에도 아일랜드의 RTE국립교향악단, 영국 필하모니아, 덴마크 코펜하겐 필하모닉, 스웨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Etta Murfitt

안무 및 조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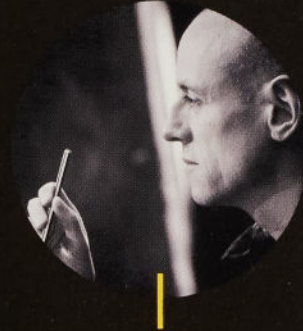
에타 머핏은 안무가 매튜 본(Matthew Bourne)의 뉴 어드벤처스(New Adventures)의 부예술감독으로서 무용단의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한 "Re:Bourne"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무용수로서 〈호두까기 인형〉, 〈신데렐라〉, 〈카 맨〉, 〈가위손〉 등 매튜 본이 안무한 작품 대부분에 출연했으며, 안무가로서는 트레버 넌(Trevor Nunn)이 연출한 〈A Chorus of Disapproval〉, 〈Rosencrantz & Guildenstern Are Dead〉, 루퍼스 노리스(Rufus Norris)의 〈Sleeping Beauty〉, 홀랜드 파크 오페라단의 〈Le Nozze di Figaro〉 등의 작품에서 안무를 맡았다. 니하이의 협력 아티스트이기도 한 머핏은 〈데드 독〉 외에도 〈Steptoe and Son〉, 〈The Umbrellas of Cherbourg〉, 〈946〉 등을 함께 작업했으며, 〈The Wild Bride〉, 〈Tristan & Yseult〉에서는 직접 출연을 맡아 미국을 투어하기도 했다.



Michael Vale

디자인

무대와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베일은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내셔널 씨어터, 로열 오페라 하우스, 로열 페스티벌 홀, 퀸 엘리자베스 홀 등 영국 최고의 예술단체 및 공연장들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미국, 뉴질랜드, 일본, 폴란드 등 해외의 여러 극단 및 오페라단과 함께 지금까지 200여개가 넘는 작품들을 작업해왔다. 그는 영국 최고 권위의 공연예술상인 올리비에상에 두 차례 노미네이트된 바 있으며, 아이리시 타임스 연극상,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연극상, 오프-웨스트엔드 연극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Malcolm Rippeth

조명 디자인

니하이의 협력 아티스트로서 〈Brief Encounter〉, 〈946〉, 〈Tristan & Yseult〉, 〈The Wild Bride〉, 〈The Red Shoes〉, 〈Nights at the Circus〉, 〈The Umbrellas of Cherbourg〉와 같은 작품에서 작업했다. 특히 그는 〈Brief Encounter〉의 조명디자인으로 whatsonstage.com이 수여하는 관객상과 뉴욕의 OBIE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브로드웨이의 아우터 서클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그 밖의 연극 작품으로는 RSC의 〈The Empress〉, 로열 코트 씨어터의 〈Spur of the Moment〉, 〈Six Characters in Search of an Author (West End)〉, 〈The Boy in the Striped Pyjamas (Chichester)〉, 〈The Promise (Donmar Trafalgar)〉 등이 있으며 오페라와 무용 작업도 하고 있다.



Ian Davies

음향 디자인

리버풀 에브리맨&플레이하우스에서 수석 음향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리버풀과 니하이가 〈데드 독〉을 공동제작하게 됨에 따라 음향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었다.



Paul Crewes

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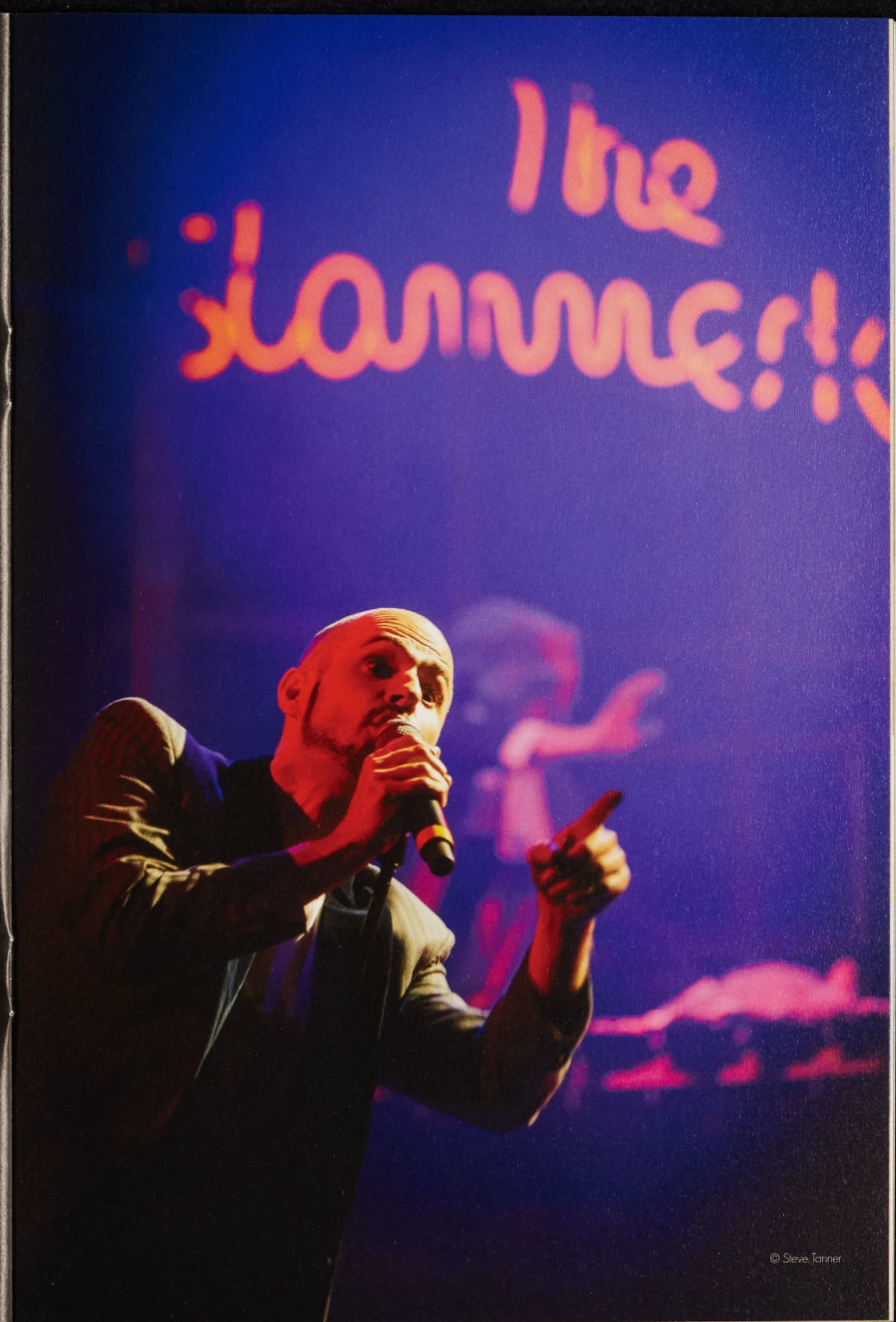
니하이에 합류하기 전 리즈의 웨스트 요크셔 플레이하우스에서 프로듀서로 재직하면서 니하이를 비롯해 임프로바블 극단, 테아트르 로메아, 내셔널 씨어터, 웨스트엔드의 극장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2005년에는 자신이 설립한 극단의 작품 〈Doorman〉으로 영국 전역을 투어했고, 2007년 로리(Lowry) 극장의 협력 프로듀서로서 〈King Cotton〉을 제작했으며, 그 외에도 피닉스 댄스 씨어터 컴퍼니, 연출가 주드 켈리(Jude Kelly)의 극단 메탈과도 함께 일했다.

니하이에서는 〈Tristan & Yseult〉, 〈Cymbeline〉, 〈Rapunzel〉, 〈Don John〉, 〈Hansel & Gretel〉, 〈Brief Encounter〉, 〈The Red Shoes〉, 〈Blast!〉, 〈The King of Prussia〉, 〈The Wild Bride〉 등 많은 작품을 제작해 영국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투어를 진행했으며, 2010년에는 어사일럼의 개관을 이끌었다. 또한 리버풀 에브리맨&플레이하우스의 이사회 중 일원으로서 새로운 극장 건설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그는 이제 니하이를 떠나 2016년 4월부터 미국 LA에 위치한 월리스 애넌버그 공연예술센터(Wallis Annenburg Centre for Performing Arts)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Sam Jones CDG

캐스팅

RSC의 캐스팅팀장으로 재직했던 그는 웨일즈 국립 극장의 초창기 다섯 시즌 동안 캐스팅을 담당하기도 했다. 니하이와는 〈Nights at the Circus〉, 〈Brief Encounter〉, 〈The Wild Bride〉, 〈Midnight's Pumpkin〉, 〈Wah! Wah! Girls〉, 〈946〉 등의 작품에서 함께 일했다. 그 외 연출가 피터 홀(Peter Hall)과 스티븐 버코프(Stephen Berkoff), 웨어드 익스피리언스 극단, 영 빅, 로열 코트 씨어터, 다수의 웨스트엔드 작품들을 비롯해 BBC와 ITV 등 여러 TV 드라마 시리즈의 캐스팅 작업도 진행했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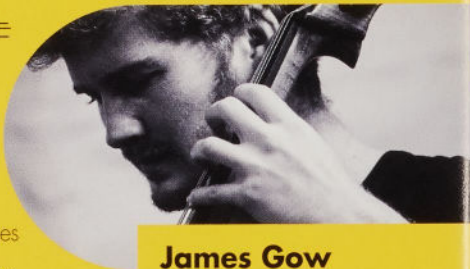


Rina Fatania

피침 부인

런던의 센트럴 스쿨(The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서 수학했다. Theatre Royal Stratford East, RSC, The Swan Theatre, Hackney Empire, Hampstead Theatre 등 영국의 대표적인 극단 및 공연장의 작품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BBC가 제작한 영화와 라디오, 그리고 뮤직 비디오에도 다수 출연했다.

런던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그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 분야에서의 활동 외에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퓨전 재즈 그룹 Lunch Money나 브리스톨의 포크 뮤직 콰르텟 Eleven Magpies와 같은 밴드와 함께 연주도 하고 있다. 그는 니하이의 <Brief Encounter>와 <Tristan & Yseult>에 출연한 바 있으며, 그 외 <James & the Giant Peach (West Yorkshire Playhouse)>, <The Band at the End of the World (Ramshacklicious)>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James Gow

연주 및
맥히스의 갱단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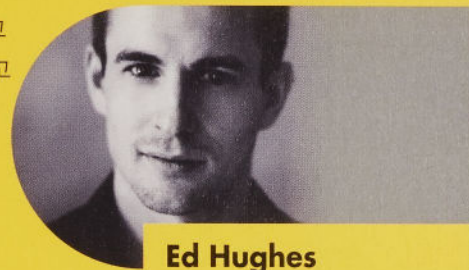


Angela Hardie

폴리 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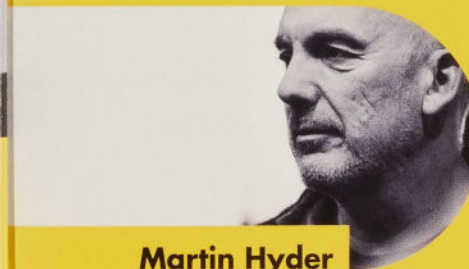
에딘버러에서 거주하며 <Calum's Road (National Theatre of Scotland)>, <Tall Tales for Small People (National Theatre of Scotland/Communicado)>, <Spring Awakening (Grid Iron/Traverse)>, <A Christmas Carol (Royal Lyceum)>, <Girl in Bolted (Scottish Opera)> 등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공연단체들의 작품에 다수 출연했으며, 런던으로 이주한 이후 니하이와 새롭게 인연을 맺었다. 또한 Channel 4, BBC 등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Salida Productions의 공동 예술감독으로서 연출과 제작을 맡고 있으며, 배우로서는 연극과 영화, TV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출연작으로는 <This House (National Theatre)>, <Democracy (Sheffield and The Old Vic)>, <Hamlet (The Old Vic)>, <The Canterbury Tales (RSC/West End)>, <Romeo and Juliet (English Touring Theatre)>, <The Little Foxes (Donmar Warehouse)>, <Finding the Sun (National Theatre)>, <'Tis Pity She's A Whore (Young Vic)>을 비롯해 BBC의 <EastEnders>와 <Law & Order>와 같은 TV 시리즈도 있다. 연출작으로는 <West Side Story (RCSSD)>, <Macbeth (NYT West End)>, <Romeo and Juliet (Salida Productions and Mercury Theatre)>, <Formby (Salida Productions, National Tour)> 등이 있다.



Ed Hughes

맥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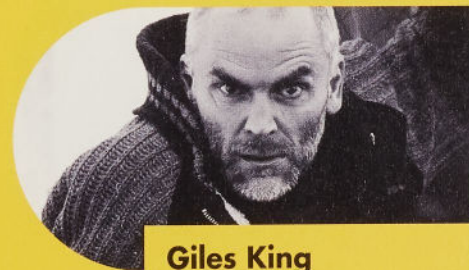


Martin Hyder

레스 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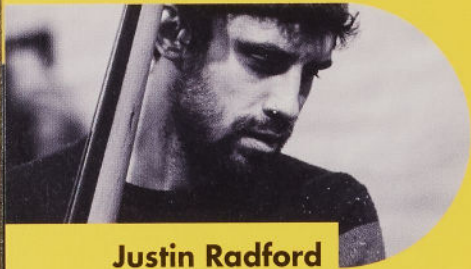
2014년 <데드 독>을 통해 처음으로 니하이의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무대 작품으로는 <Tartuffe (Birmingham Rep)>, <The Mouse and His Child/The Merry Wives of Windsor (RSC)>, <And the Horse You Rode On (Told By An Idiot/Barbican)>, <Bleak House (New Vic Theatre)>, <Absent (dreamthinkspeak)>, <Pericles (Lyric Hammersmith)> 등 다수가 있으며, 영화 출연작으로는 <Edge of Tomorrow (Warner Bros)>, <Going Home (BBC Films)> 등이 있다. 또한 TV와 라디오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방송 작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987년부터 오랜 세월 니하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니하이의 여러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영국과 해외 무대에 서왔다. 그는 Blackfish Theatre의 <Alaska>를 제작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했으며, 영국 영화사 워킹 타이틀의 영화 <Anna Karenina>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1981년 Truro School에서 공연했던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에서도 로킷 역을 맡았었는데, 그것이 그의 첫 무대 경험이었다고 한다.



Giles King

콜린 로킷



Justin Radford

연주 및
맥히스의 갠단 일원

영국 콘월 출신으로 작곡가 겸 연주자, 프로듀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으며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Human Suits Collective'의 일원으로서 영화나 다양한 작품들을 위한 작곡도 해오고 있으며, 워크샵, 프로듀싱도 병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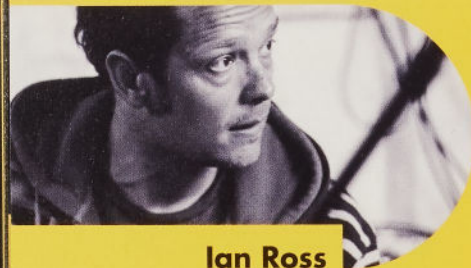
배우 겸 작가, 작곡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디프에 있는 극단 Gagglebabble의 공동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이 대본을 쓰고, 작곡, 출연을 맡은 뮤지컬 《The Bloody Ballad》로 영국의 다양한 공연상들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The Village Social》, 《My Name is Sue》, 《Journey to the Riversea》, 《Grapes of Wrath》 등과 같은 작품에 출연하는 한편 다양한 무대 작품을 위한 음악을 맡았고, 웨일즈의 포크 음악 듀오인 OUION BYW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니하이의 작품을 보고 자라난 그녀는 결국 《데드 독》을 통해 니하이와 함께 작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극단 Gagglebabble과 함께 로알드 달(Roald Dahls)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 작품 《Wonderman》을 제작하고 있다.



Lucy Rivers

굿맨 시장의 부인

브리스톨 출신으로 여러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이며 니하이의 작품 《Hansel & Gretel》, 《A Very Old Man with Enormous Wings》의 작곡을 맡았고, 《Brief Encounter》, 《Don John》, 《The Red Shoes》, 《The King of Prussia》, 《The Wild Bride》, 《Tristan & Yseult》, 《Peter Pan (Bristol Old Vic)》에서는 연주를 맡았다. 또한 영화 《Weekend Retreat (O-region)》의 작곡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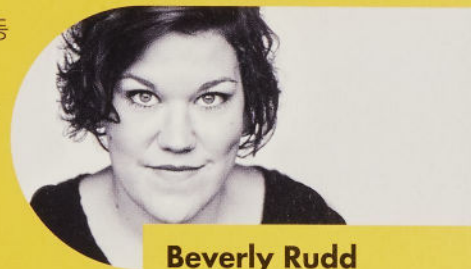


Ian Ross

공동 음악 감독,
연주 및 굿맨 시장,
맥히스의 갠단 일원

LAMDA를 졸업한 후 BBC의 여러 채널과 Channel 4, Sky 1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대표적인 무대 출연작으로는 《James & the Giant Peach (West Yorkshire Playhouse)》, 《Much Ado About Nothing (Royal Exchange Theatre)》, 《The Little Mermaid (Bristol Old Vic)》, 《The Magistrate (National Theatre)》 등이 있으며 2009년 《Massive》로 RTS Award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Beverly Rudd

루시 로킷



Jack Shalloo

필치

런던 출신으로 Colins Performing Arts에서 수학했다. 대표적인 무대 출연작으로는 샘 멘데스(Sam Mendes)의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를 비롯해 《The Snow Queen (The Nuffield Theatre)》, 《A Clockwork Orange (Straford East Theatre Royal)》, 《Goodbye Barcelona (Arcola Theatre)》 등이 있으며, BBC와 ITV의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해왔다. 그는 최근 음반 《London Soul》을 발표했으며 온라인 코메디쇼인 The Sketchbank에서 집필과 개발을 맡고 있다.
www.jackshalloo.co.uk

어린 시절부터 Little Angel Theatre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이후 피지컬 씨어터와 인형극을 기반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니하이의 협력 아티스트로서 인형극 연출과 제작을 맡아 《Brief Encounter》, 《The Red Shoes》, 《The Wild Bride》, 《Little Angel: Very Old Man with Enormous Wings》 등과 같은 작품에 참여했으며, Young Vic, RSC의 작품과 매튜 본(Matthew Bourne)의 《Sleeping Beauty》에서도 작업했다.



Sarah Wright

인형 및
맥히스의 갠단 일원

WELCOME INTERVIEW

니하이 씨어터 예술감독 마이클 셰퍼드

예술을 완성하는 가장 예술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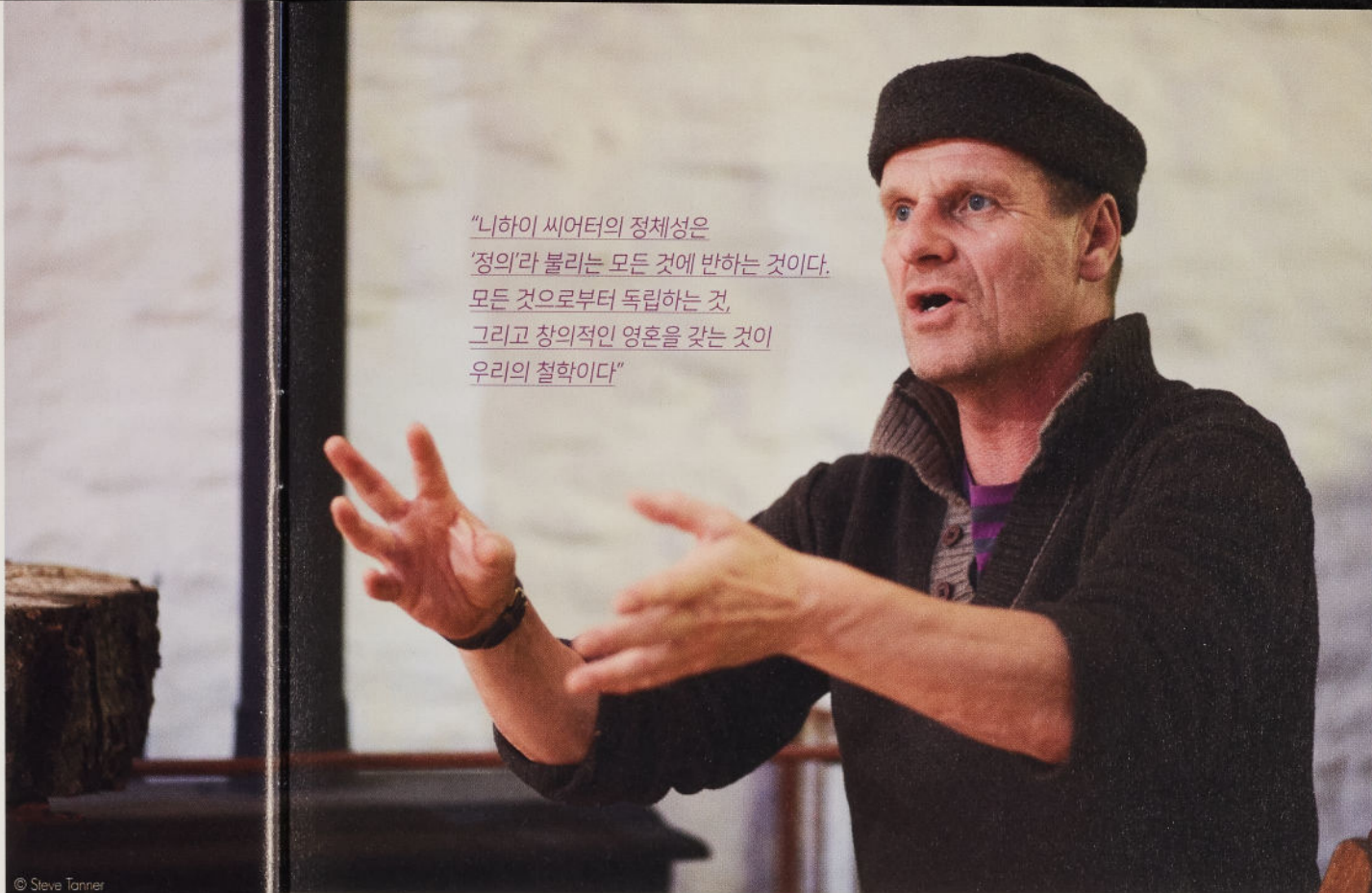
무한한 가능성으로 혁신을 거듭하는 영국 극단 니하이 씨어터가 온다.

영국 서쪽 최남단에 위치한 콘월. 맑고 잔잔한 바다와 아득한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평화로운 도시. 이곳에 거대한 텐트를 세워둔 채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고, 춤추며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라면 서로 어떤 감정 표현도, 어떤 행위도 이해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람들. 작가와 작곡가, 배우와 연출가가 매일 아침 만나 영역의 구분 없이 '표현 방식'을 고민하며,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한 채로 작품을 올리는 법이 없다.

이상적인 창작 과정을 통해 매년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이들은 바로 영국의 극단 니하이 씨어터(Kneehigh Theatre)다. 창립된 지 36년이 된 이 중견 극단은 역사의 시작부터 남다르다. 1980년 어느 날, 콘월의 한 학교 젊은 교사 마이클 셰퍼드(Mike Shepherd)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연극 워크숍을 연다. 학생들을 비롯해 마을의 농부, 전기공, 슈퍼마켓 점원과 지역 밴드의 기타리스트 등을 불러 모아 연극을 완성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의 남다른 열정으로 극장뿐 아니라 항구, 숲속, 언덕 꼭대기에서도 공연을 갖게 되고, 이들의 참신성과 도전 정신은 영국 전체의 관심을 받게 된다.

마이클 셰퍼드는 교사가 아닌 예술 감독으로서 본격적으로 연극계에 뛰어들다. 이들이 국제적 명성을 얻은 건 2003년, 콘월 지역의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다. 작품의 성공은 영국 투어 공연과 미국 진출이라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2008년에 내놓은 '밀회' 역시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미국 투어가 이어지며 세계무대에 극단의 정체성을 각인시킨다.

이번 첫 내한 공연에서 니하이 씨어터는 2014년에 창작한 '데드 독'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를 근간으로 한다. 1728년작 <거지 오페라>는 자국의 부패한 정치판과 호화롭게 치장된 이탈리아



© Steve Tanner

“니하이 씨어터의 정체성은
‘정의’라 불리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것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고 창의적인 영혼을 갖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오페라를 풍자하는데, 2016년에 공연하는 <데드 독>의 탄생 배경 역시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마이클 셰퍼드의 설명이다.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셰퍼드에게 극단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거지 오페라>를 바탕으로 하는 <데드 독>의 창작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거지 오페라>는 탄생한 지 300여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명작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1728년에 존 게이는 모든 인간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리한 사회, 정부에 작품으로서 '반응' 했다. 1928년, 이 작품을 <서퍽오페라>로 각색한 브레히트 역시 현재의 내가 느끼는 것과 같

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시대가 흘렀음에도 당대가 지니던 문제와 현대의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다름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살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서퍽오페라>도 훌륭한 작품이었지만, 우리는 현대의 청중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현대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강렬하게 살아 숨 쉬는 작품을 완성했다.

극작가, 작곡가와 작품의 형식과 분위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를 했나? 노래·연주·연기를 겸하는 배우들에게 표현법에 있어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도 궁금하다. 니하이 씨어터의 작품은



© Steve Tomner

공동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최초의 아이디어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이는 절대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무언가로 자란다. <데드 독>의 창작 일지 첫 페이지에는 '정 치적 호러 발라드'라고 적었다. <서퍽파리 오페라>와 묘사 방식이 같은 것이다. 다양한 이미지를 보며 초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한 지역 예술가의 '어두운 시대'라는 그림을 보았고, 누군가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사진, 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사진 등을 보았다. 주인공 맥히스는 모든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마성의 바람둥이이며, 우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을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를 홀리고 풀려나는 과정이 너무 쉬우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아이들의 코러스를 넣었다. 담배를 태우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아이들이 불쾌한 노래를 부른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많은 것이 존재하지만, 어수선하지는 않도록 표현했다. **작품 개발을 매우 자유롭게, 열어둔 채로 진행한다고 들었다. 작품이 자연스럽게 무르익도록 시간**

을 충분히 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연출가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무엇이든 콘월이라는 우리의 구역 안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드넓은 바다와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고 악기, 의상, 조명 등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다. 고유의 빛깔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의 창의력을 끌어올린다. 니하이 씨어터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데드 독>의 작곡가 찰스 헤이즐우드와 극작가 카를 그로즈 역시 극단에서 영향력이 큰 '니하이 패밀리'다. **2010년 해안가에 세운 천막형 공연장 여사일림(Asylum)이 방금 이야기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여사일림은 극단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사일림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 6년간 수많은 장난과 놀라운 일, 불손한 재미가 가득했다. 공연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의 여름 달력에 꼭 가야만 하는 장소로 체크될 만큼 자리를 잡았다. **30년 전 니하이 씨어터가 탄생한 순간을 돌이켜보**

자.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 주민들과 '무엇'을 만들고 싶었나? 그것이 곧 니하이 씨어터만의 정체성일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극장의 제약에서 벗어나 커뮤니티를 위한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다. 니하이 씨어터의 정체성은 '정의(definition)'라 불리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닌 철학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고 창의적인 영혼을 갖는 것이다.

함께할 배우나 창작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팀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모험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기대한다.

그 동안의 작품 목록을 보면, 기존에 있던 캐릭터나 작품을 니하이 씨어터만의 색깔로 각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다.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보석을 찾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품을 어느 정도 완성해 여러 번의 리허설을 가진 후 최종 대본을 완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는 그저 스토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며,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가장 독창적인 방법을 찾는다. 늘 목표하는 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말하려고 한다.

'니하이 쿡북(Kneehigh Cookbook)'이라는 이름의 흥미로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 창작 과정을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니하이 쿡북'은 니하이 씨어터의 또 다른 시도다. 이것은 우리의 창작 과정을 필요로 할,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극예술품을 가르칠 선생님이나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니하이 쿡북'은 니하이 씨어터가 만든 모든 작품의 뒷면을 보여준다. 영상, 텍스트, 드로잉 이 모든 것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광기가 활기를 띠며 마술이 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무척 멋진 일이다! **현재 구안 중인 작품이 있는가? 앞으로 계획을 들려준다면?** 올해는 세 편의 신작을 선보이는 무척 뜻깊은 해다. 소설가 짐 도지(Jim Dodge)의 현대 우화를 바탕으로 하는 오리 이야기 <FUP>과 소설가 마이클 모푸고(Michael Morpugo)와 협력한 <946>, 화가 마르크 샤갈의 젊은 시절을 그린 <플라잉 러버스 오브 비테스크(The Flying Lovers of Vitebsk)>로 관객을 만난다. 우리는 수백만 개 아이디어로 무궁무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샤우뷔네 베를린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민중의 적

“토마스 오스터마이어는
입센의 진지한 사회극을 예술적이며
동시에 대중적인 현대적 코드로
재구성하여 가치 부재의 동시대를
통쾌하게 희롱한다.
근자의 유럽 최고의 연극이다!”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연극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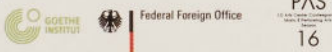


© Arno Decker

Schaubühne
'An Enemy of the People'

5.26-28

작. 헨릭 입센(Henrik Ibsen) 연출. 토마스 오스터마이어(Thomas Ostermeier)
일시. 2016.5.26(목)-28(토) 평일 8pm, 토 3pm 입장권. R 80,000 / S 60,000 / A 40,000
주최/장소. LG 아트센터 제작. schaubühne berlin 협찬. 신한카드 후원.



COM PAS

〈백조의 호수〉, 〈가위손〉, 〈호두까기 인형!〉에 이은
천재 안무가 매튜 본의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라!



Matthew Bourne's

SLEEPING BEAUTY

A GOTHIC ROMANCE Music by Tchaikovsky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2016.6.22 - 7.3 LG 아트센터

COM PAS

일시 2016.6.22(수) - 7.3(일) 평일 8pm, 주말 2:30pm / 7:30pm (단, 6.23(목)은 3pm / 8pm 2회 공연) 주최 및 장소 LG 아트센터
문의 및 예매 LG아트센터 02-2005-0114 티켓 VIP 13만원 / R 10만원 / S 8만원 / A 6만원 / B 4만원
외부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협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NEW/ADVENTURES ARTS COUNCIL ENGLAND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LG하우시스의 앞선 공간기술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수퍼세이버창



건강한 바닥재 지아소리잠



건강을 더한 지아벽지



연비절감 경량화 소재



인테리어 대리석 하이박스



자연을 담은 데크 우젠



식품 유래 성분 대쉬보드



쾌적한 시트소재



디자인 인테리어필름



건장재 z:in

에너지를 절감하는 창호/고단열 유리
자연 유래 성분의 벽지/바닥재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대리석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필름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고기능소재

기능성 가전표면재
차세대 진공단열재
터치 스크린용 고기능접착필름
옥외 디스플레이 광고용 시트

자동차소재부품

우수한 내구성의 쾌적한 자동차 원단
고강도 경량화 복합 소재부품
자동차부품 점착테이프 필름

- 누군가의 상상력
- 누군가의 아침
- 누군가의 브레인
- 누군가의 전문성
- 누군가의 스마트 라이프
- 누군가의 글로벌
- 누군가의 탐험
- 누군가의 행복한 내일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넘어 세상의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꿈꾸시면
LG 디스플레이가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Dream,
We Display.





수분길로 푹 빠져드세요

피부 수분길을 따라 깊숙이 빠져들어
촉촉함을 되살려주는 숨37 워터플 젤 크림
매순간 치으르는 탄탄한 보습력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변함없는 수분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숨37 워터플
타임리스 워터 젤 크림



아름다운 자연 발효 숨₃₇ su:m 37°

이러를 함께 하는



신한금융그룹



"슈퍼맨이 집으로 돌아왔다"
-개인 취미보다는 가족을 위한 지출이 우선-



"아줌마? 화려한 싱글이라고 전해라"
-40대 싱글여성의 자신을 위한 소비증가-



"잘원.얼" (잘나는 남자의 관성은 얼얼)
-외모에 투자하는 남자들로 바버샵 호황-



"송년회 산년회 장소의 승자는?"
-홀대, 연남동, 상수동이 뜬다-



"응답하라! 착한 아들"
-고가의 패딩에서 실속형 패딩으로-

1등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로 2016년 새롭게 진화하는 생활

나를 위한 트렌드 분석과 예측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카드와 쿠폰 서비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 활동까지

'새로운 나'를 위한 신한카드의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신한카드의 2,200만 빅데이터!
2016년에도 고객을 위해 진화합니다

2016년, 신한카드 - 2,200만 빅데이터는 진화한다

신한 트렌드 연구소
트렌드 분석에서 예측까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분석,
새로운 Trend 발굴/예측

code9
소비자 맞춤형 카드 서비스
금융없이 변하고 확장하는
고객중심의 마케팅 혁신 체계

Sally
고객에 딱 맞는 쿠폰추천 서비스
고객별 최적화된 혜택을 추천해 드리는
빅데이터 기반 쿠폰서비스

SAM2016
빅데이터 세이프로그래프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노하우를 대학생과
공유하는 따뜻한 금융 실현 프로그램

빅데이터 컨설팅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전략수립, 협력적 의사결정 지원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COM
PAS
LC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ction
16